JY "국민 성원으로 성장… 지금같은 때 사회와 나눠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계 피해복구 지원 본격화

정의선 "의료활동에 직접 도움되게 구체적인 지원 이뤄지게 해야"

대구·경북 중심 방역서비스 실시 긴급회의 등 열고 물품지원 계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재계가 코로나19 예방과 피해 복구 지원을 본격화했다.

삼성은 26일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의료용품과 생필품 등 30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14개 계열사가 이날 이사회와 경영위원회를 열고 지급을 결의했다.

삼성은 ▲손소독제와 소독티슈 등 의료용품 ▲자가격리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키트 ▲의료진을 위한 면역력 강화 건강식품세트 등의 구호물품과 구호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삼성은 지금과 같은 때에 마땅히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고통 받거나 위기 극복에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력하나마 모든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코로나19의 사전 방역과 조속한 피해 복구 등을 돕기 위해 50억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원이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치료·방역 등 의료활동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전국의 재난취약계층과 의료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금과 구호·방역 물품 제공, 예방·방역 활동 등을 지원한다. 감염 시 피해가 큰 재난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구·경북지역의 노인·장애인 시설과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열감지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의 소외계층과 자가 격리자들에게 식료품 키트도 전달한다.

SK그룹 역시 같은날 5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앞서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SV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SK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코로나19 피해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보육원과 양로원 등 취약 계층과 자가 격리자들을 위한 생필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대구·경북 지역 의료지원 봉사자와 방역 인력 등을 위해 방호복 등 의료물품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4억원 가량 현물을 전달키로 했다. 경북 구미에 있는 SK실트론이 마스크 10만장과 손세정제 2만5000개 등 현물을 내놓기로 한 것. 물품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쓰이게된다.

아울러 SK그룹과 관계사들 역시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동참키로 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 등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현금과 현물 이외의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LG도 같은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억원을 기탁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취약계층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LG는 확진자 지원과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을 지원하게 되며, LG생활건강이 추가로 10억원 상당 핸드워시를 기부하기로 했다.

/양성운·김재웅 기자 ysw@metroseoul.co.kr

마스크 106만개 대구에 긴급 지원 대구·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26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대구스타디움에서 중앙정부에서 긴급지원한 마스크 106만개가 대구시 각 구청과 경북 각지에 배분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자 일주일새 32명→1200명대 폭증

확진자 284명 추가… 누적 1261명

대구·경북서 81%… 사망자 12명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한달여만에 1200명을 넘어섰다. 32명에서 1200명 이상으로 40배 늘어나는데는 고작 일주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오전 9시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 169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1146명으로 늘며 처음 1000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오후에 115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국내 확진자는 1261명으로 늘어났다.

국내 코로나19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5세 중국인 여성이 첫번째 확진자로 판정을 받으며 시작됐다. 이후 한달간 총 32명의 확진자만 발생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듯 했다. 상황이 뒤바뀐건 지난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31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 부터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8일만인 이날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섰다.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도 1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서도 235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나왔다. 대구에서 167명, 경북에서 68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전체 환자 중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환자는 총 1027명으로 전체 환자의 81%를 차지한다. 서울 확진자도 총 49명으로 늘어났고, 부산에서도 이제까지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청도 대남병원 내 7번째 사망 사례가 발생했고, 대구에서도 73세 남성이 사망하며, 사망자는 총 12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천지 21만 교인 명단을 확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전달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자가격리 조치한 후 감염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전국 어린이집을 다음달 8일 까지 열흘간 휴원한다. 다만,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 유연근무제를 적극 권장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나이롱환자 줄어 '喜' 설계중심 영업엔 '悲'

보험사, 코로나19에 희비 엇갈려

생보사 대면영업 98%, 손보사 87%

보험사, 설계사에 영업 자제 권고

지난달 車보험 손해율 20%p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명·손해보험사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설계사 중심의 대면영업 비중이 높은 보험업계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장 올해 1분기 실적이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과다 입원 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가 줄면서 손해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대면영업 비중은 생명보험이 전체 영업의 98%, 손해보험이 전체 영업의 87%를 차지했다. 최근 텔레마케팅(TM) 채널이나 온라인(CM) 채널을 통한 비대면 영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설계사를 통한 대면 영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대되면서 보험 영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타인과의 만남을 기피하면서 대면영업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설계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나오면서 영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삼성화재 대구사옥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20일 폐쇄됐다가 24일 다시 문을 열었다. KB손해보험 대구지점 사옥도 지난 21일부터 임시적으로 폐쇄됐다 26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갔다.

이 영향으로 일부 보험사들은 대면모집을 주요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영업 자제 권고를 내렸다.

KB손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특별 근무 지침을 안내했다. 특히 대면채널을 통해 영업하는 설계사에 대해 각 지역단에서 영업을 되도록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설계사도 여행자제를 권고하고 해외 방문 시 보고하도록 하며 대면영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필요시에는 내부 직원과의 유선연결을 통해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방역용품(손 세정제·마스크·체온계)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객접점(프라자·융자창구·지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영업활동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보험 실적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영업이 상당 부분 축소되면서 실적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영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나이롱 환자가 줄면서 손보사들의 보험금 누수 감소로 손해율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96%), 현대해상(90.5%), DB손해보험(89%), KB손해보험(90%) 등 9개 손해보험사의 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91.7%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이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이 111.6%를 기록한 것을 고려할 때 2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김희주 기자 hj89@

기업 체감경기 급랭… 4년만에 최저

한은,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산업 BSI 65… 하락폭 역대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체감경기가 급격히 얼어 붙었다. 2월 전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0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BSI는 65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지난 2016년 2월(63)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하락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1월 이후 가장 컸다.

제조업 업황BSI(65)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이 역시 2016년 2월(63)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다. 하락폭은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가 미친 2012년 7월(-11포인트)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김희주 기자